

한국알프스, 광주 외투 기업 첫 대규모 증액 투자

450억원 상당 반도체·자동차 분야 제조·연구시설 상반기 착공 핵심 부품기술 이전에 제품 개발·생산 인력 80명 신규 채용 계획

광주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알프스가 처음으로 대규모 증액투자에 나선다. 광주시는 이번 투자유치를 신호탄으로, 글로벌 혁신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알프스는 반도체 및 자동차 분야 핵심부품인 파워인덕터(Power Inductor), 햅틱모듈(Haptic) 등 449억원 상당의 제조·연구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광주에서 증액투자에 나선 건 한국알프스가 첫 사례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파워 인덕터는 배터리로부터 오는 전력(파워)을 반도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핵심부품으로,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전기자동차 등에 필수로 사용된다. 햅틱은 사람의 촉각과 관련한 차세대 기술로, 사용자가 터치스크린을 터치했을 때 사용자에게 실제 키보드의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은 버튼 터치감을 느끼게 하는 기술이다.

한국알프스는 전 세계 고객사에 파워 인덕터, 햅틱모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제조·연구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며, 핵심 부품기술 이전에 따른 제품 개발과 생산을 위해 80명을 신규 고용한다.

광주시는 한국알프스(주), 본사인 알프스알파인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광주투자환경설명회에서 한국알프스(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면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방식으로, 최종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 및 제품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FDI 현금지원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한 점도 증액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 광주시는 전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산업실장은 "글로벌 기업인 한국알프스(주)가 증액투자를 단행한 것은 입주 외투기업 첫 사례"라면서 "지역 첨단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공급망 확보,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987년 설립된 한국알프스(주)는 일본 도쿄에 있는 글로벌 기업인 알프스알파인이 100% 투자한 기업으로 차재전장·통신 관련 부품, 컴포넌트 등의 전자 부품을 제조·생산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삼



광주에 449억원 규모의 제조·연구시설을 추가 건립하기로 한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소재 한국 알프스 공장 전경.

성전자, LG전자, 마쯔다, 혼다, 지엠, 볼보, BMW, 다이입 등 주요 글로벌 고객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광주지역 대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2022년 기준 총매출은 1조 5000억원이며 정규직과 협력사

등 1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요기지구 '상습 침수 지역' 오명 벗는다

배수개선 사업비 146억 확보...광산구 북룡동 일대 2027년 완료

오는 2027년이면 광주 광산구 북룡동 등 요기지구 일대가 상습 침수 피해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상습 침수 피해를 입어온 광산구 요기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 요기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에 이어 올해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다.

배수개선사업은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50ha 이상 저지대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배수장·배수문 등을 설치해 재해 예방 및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농가소득 증대 사업 중 하나다.

전역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규 착수지구 선정을 받기 위한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며, 정부의 예산 부족 등으로 기본조사 완료 후에도 신규 착수지구 선정까지는 평균 4년 이상 소요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요기지구 개선사업의 시급성을 적극 설득했으며, 1년만에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요기지구는 해마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곳으로, 광주시는 이번에 사업비 146억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함에 의해 설계역역에 들어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 배수로 정비 및 배수장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광산구 북룡동 등 3개 동 일대 총 156ha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벗어나는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택송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요기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마치면 농경지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영농환경이 개선돼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자립준비청년 지역 정착 통합 서비스

주거·취업·경제 자립 지원 등 5개 분야 24개 사업 추진

전남도가 자립 준비 청년이 보호 종료 후에도 전남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하는 '전남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형 종합계획은 기존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급 등 경제적 지원 위주에서 안정적 전남 정착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지지체계 및 건강관리 강화 ▲주거 지원 확대 ▲취업 지원 강화 ▲경제적 자립 지원 ▲자립 지원 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 등 5개 분야 24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자립 준비 청년이 사회활동과 인간관계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출발 드림 워크숍', '포 래친구랑 마음톡톡(Talk Talk) 프로그램' 등 인

적 연결망과 지지체계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 맞춤형 주거 컨설팅과 함께 전·월세비를 지원하고 목표와 순전에 희망디딤돌 전남센터를 개소하는 등 전남 취업 청년을 위해 주거 공급을 확대한다.

자립 준비 청년의 직업 선택과 취업 지원을 위해 선 일자리 투어, 고용복지+센터, 세일센터 등에 일자리 매칭 전남창구를 운영하고 기업협약을 통한 취업 연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전남자립지원 전남기관 기능을 강화한 종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적재적소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시기별 방역 강화

전남도, 상시예찰 기준 개선·개체수 조절·발생국 입국 검역 등

전남도가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중 발생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검출 지점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시기별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과 물류 이동이 증가하는 봄·가을 집중 발생 경향을 보였으나 올해 3월 강원, 경기 등에서 6건이 발생하는 등 겨울에도 이례적으로 발생해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연중 위험 시기별 방역관리와 상시예찰 기준 개선,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 입국 검역 강화 등을 추진하고 농장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영농 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시기인 4-5월과 9-11월 바이러스가 양돈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 취약농가 점검과 소독을 강화한다. 7-8월에는 장마와 태풍 등 재난 발생 단계별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1-3월 한파 대비 소독장비 등과 방치 방안 등 방역수칙을 홍보·점검할 방

침이다. 또 혈액 시료 외 타액 등 바이러스 검출 가능성이 높고 채취가 쉬운 시료를 활용하도록 상시예찰 기준을 개선하고, 야생멧돼지의 개체 수를 줄이고 서식밀도를 낮추기 위해 사군 피해방지단 398명이 집중적인 포획·수색에 나선다.

이밖에 중국과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취항 노선 검역을 강화하고 여행객에게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홍보 등 해외 유입 가능성을 차단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전남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양돈농장은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인 통제, 방역복 착용,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돼지농장에서 34건, 야생멧돼지에서 2982건이 발생했으나 전남에서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